육가공용 사각캔 시장 국산화 성공

세계적 품질수준 캔 제품 공급

정 지 택
한일G&M(주) 대표이사

국내 최대 규모로 식음료용 캔을 공급해 온 한일제관(주)이 덴마크의 Glud&Marstrand와 합작으로 한일G&M(주)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국내 캔 업계의 경우, 둥근 캔은 생산이 가능했지만, 사각 육가공 캔의 경우 20여년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것이 현실.

육가공 캔의 국산화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막을 열게 된 한일G&M(주)(대표이사 정지택)은 지난 40년 이상 국내 식품 및 음료 포장업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제관회사 REXAM과의 합작회사인 한일제관과 덴마크의 세계적인 육가공캔 전문 메이커이자, 18년간 국내에 육가공캔을 수출을 해 온 Glud & Marstrand사가 50대50의 자본 출자로 세워진 국내

▲ 한일G&M의 통조림 캔

▲ 충북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G&M(주)

육가공 캔 전문 기업이다.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 온 국내 육가공 시장에 그간 20여년간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육가공용 사각캔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지택 사장은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루 갖추고 원가와 납기에서도 고객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 2피스캔을 국내에서 양산하여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9년 한일제관(주)에 입사한 정지택 사장은, 한일제관(주) 상무를 거쳐, 지난 해 한일G&M(주)의 대표이사로 선임, 한일제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장본인이다.

정 사장은 Customer oriented marketing polocy(고객존중의 마케팅 정책), Highly valued product innovation(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 Acceta-ble and responsible quality(최적의 책임있는 품질), Natural friendly product(환경친화적 제품의 지향), Global partnership for competitive edge(경쟁력 우위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쉽), Enhance competence for furture growth(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의 경영방침 아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관업계를 선도할 포부를 갖고 있다.

현재 충북 음성 하이텍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G&M(주)은 한일제관의 수준 높은 품질 체계, 신속한 공급체제와 서비스, 그리고 Glud & Marstrand 사의 육가공캔에 특화된 세계적인 품질수준 및 제조능력과 18년간의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한 경험과 어우러져 최신의 기술과 설비를 바탕으로 기존 국내 육가공 업체에서 설비를 바꾸지 않고 일부 개조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한 육가공용

HANIL G&M

사각 알루미늄 DRD 제품과 개관성과 품질적성이 향상된 E.O.E.를 기존설비에 추가 비용 없이 원가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라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생산능력과 품질성능이 우수한 세계 최신 설비를 도입, 알루미늄 2피스 캔과 쉽게 개봉 할 수 있는 원터치 뚜껑을 생산함으로서 기존의 스틸원터치 뚜껑의 품질 문제점인 발청, 개봉 어려움 및 안정성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육가공 회사인 CJ, 롯데햄, 동원 등 주요 공장들이 인접해 있어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공급이 가능하며, 기존의 한일제관의 영업과 고객지원팀도 활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국내 육가공용 사각캔 시장은 9천만개 (300억원)정도이며 향후 2009년 이후에는 1억개 이상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일G&M(주)은 생산설비에만 2백억원 정도를 투자, 육가공용 사각캔의 경우 연간 1억개, 뚜껑은 2억7천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내 수요 전량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일G&M이 생산하고 있는 사각캔

정지택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보기엔 아직 생긴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생 기업이지만 열정과 기술력, 설비 및 체계는 여타 제관업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한 가지씩 실천하는 사회공헌으로 관련 업계와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제관회사가 되는데 주력해 나갈 한일G&M(주).

무한 경쟁의 세계 식품포장 용기시장에서 최첨단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 품질수준에 적합한 캔 제품을 공급해 나갈 한일G&M(주)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